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21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교시

국어·헌법·경제학

- 응시번호 :
- 성 명 :

시험시간 및 향후일정 안내

- ❖ 시험 시간 : 14:00 ~ 15:25
- ❖ 정답 가안 발표 : 2023. 4. 22.(토) 21:00
- ❖ 정답 이의 제기 : 2023. 4. 24.(월) 09:00 ~ 4. 26.(수) 17: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5. 15.(월), 국회채용시스템

국 회 사 무 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국 어

1. 안긴문장의 유형이 다른 것은?

- ① 아이들은 장난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 ② 이러다가는 버스를 놓치기 십상이다.
- ③ 공부가 어렵기는 해도 결국 저 하기 나름이에요.
- ④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
- ⑤ 나는 하루도 달리기를 거른 기억이 없다.

2.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 ① 독감 유행이 지나가는 대로 다시 올게.
- ② 우리는 서로 걸맞는 짝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③ 컴퓨터에 익숙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크다.
- ④ 돌이켜 생각건대, 김 선생님은 정말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분이요.
- ⑤ 저는 솔직히 기대치도 않은 선물을 받아서 고마웠어요.

3. ㉠과 같은 표현 기법이 활용된 것은?

아아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행복과 희망만 가득찬
 절망이 꽃피는, 광고의 나라
 - 함민복, 「광고의 나라」에서 -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②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③ 내 마음은 나그네요 / 그대 피리를 불어주소
- ④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 낳고, 꽃을 낳는다

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현대에 들어서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역동학에서 이루어졌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에 미치는 무의식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무의식이 억압된 욕구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는데 개인이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방식을 성격이라고 보았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고 충족되는 과정을 통해 성격이 형성되고 그중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와 그를 둘러싼 갈등이 무의식으로 억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역동학은 성격의 형성 과정과 성격이 개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성격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융은 다른 정신역동학자와 달리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존재하는 무의식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융은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집단 무의식 수준의 보편적 원리들이 작동하여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융은 인간의 정신이 대립원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립원리란 개인 내에 존재하는 대립 혹은 양극적인 힘이 갈등을 야기하고, 이 갈등이 정신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융의 주장을 근거로 1940년대 MBTI와 같은 유형론적 성격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유전학과 뇌과학 등 생물학적 방법론이 크게 발전하면서 성격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부모의 양육 방식 등 환경을 강조한 정신역동학에 비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내향성과 외향성은 성격 형성에 대한 기질의 영향을 잘 보여 주는 특성이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성격 5요인 모델과 같은 특성론적 성격 이론이 확립되었다.

- ① 프로이트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고, 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 ② 생물학적 방법론은 정신역동학이 전제하는 욕구의 억압 조절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강조했다.
- ③ 융 이전의 정신역동학자들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존재하는 무의식 수준의 보편적인 원리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④ 유전학의 발전에 따른 일련의 발견들은 인간이 지닌 보편적 특성들을 통해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 ⑤ 외향성과 내향성은 서로 대립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창출하는 일종의 정신 작용으로 받아들여지며, 유형론적 성격 이론이 해체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5. 다음은 받침 ‘ㅎ’의 발음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료1. 놓고 → [노코] 앓던 → [안턴] 닳지 → [달치]
- 자료2. 앉네 → [안네] 뿔는 → [뿔는 → 뿔른]
- 자료3. 당소 → [다 : 쏘] 망소 → [만 : 쏘] 씹소 → [실쏘]
- 자료4. 놓는 → [논는] 쌓네 → [싼네]
- 자료5. 낳은 → [나은] 앓은 → [아는] 싫어도 → [시러도]

- ① ‘ㅎ(ᄃᆞ, ᄃᆞᆞ)’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쓰]으로 발음한다.
- ② ‘ᄃᆞ, ᄃᆞᆞ’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③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④ ‘ㅎ(ᄃᆞ, ᄃᆞ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⑤ ‘ㅎ(ᄃᆞ, ᄃᆞᆞ)’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크, 트, 츠]으로 발음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표현적 글쓰기는 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경시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수성가를 칭송하고 강인한 사람을 미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문화적 메시지와 그것이 우리에게 가하는 모든 압박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간과하도록 배운다. 심지어 나약하다는 느낌을 갖거나 힘든 감정을 품었다고 스스로를 혐오하기도 한다. 표현적 글쓰기는 종일 꺾꺾 참고 발설하지 않은 취약한 측면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 경청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글쓰기 과정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타인이 볼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하고 글이 충분히 좋은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나 표현적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 두서없고, 누가 읽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글을 쓴 후 버리면 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과 교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표현적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는 데 효과가 있다.
- ② 표현적 글쓰기는 자수성가를 칭송하고 강인한 사람을 미화하는 데 필요하다.
- ③ 표현적 글쓰기는 타인을 의식하여 스스로 검열하는 특징을 지닌다.
- ④ 표현적 글쓰기는 참고 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청할 기회를 준다.
- ⑤ 표현적 글쓰기는 두서없이 편하게 써서 간직하도록 고안되었다.

7.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최후통첩 게임에서 두 참가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놓고 각각 나름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A에게 1,000원짜리 100장을 모두 준 다음 그 돈을 다른 한 사람인 B와 나누라고 지시한다. 이때 A는 자기가 제안하는 액수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B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B가 그 제안을 수용하면, 두 사람은 A가 제안한 액수만큼 각각 받는다. 만약 B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 아무도 그 돈을 받지 못한다. 이는 일회적 상호작용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뿐이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이익에 충실한 개인들이라면, A는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제안하고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A가 단 1,000원만 제안하더라도,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B는 (㉠)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합리적 자기 이익에 충실하다고 확신한다면, A는 결코 1,000원 이상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을 제안하는 일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한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기적인 개인들에게서 일어날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낮은 액수의 제안을 받으면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명백한 결과에 따르면 총액의 25% 미만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은 거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록 자기의 이익이 최대화되지 않더라도 제안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액수를 반반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점은 이를 지지해 준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는 것을 보여 준다.

- ① ㉠: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한 푼도 받지 못하든가
㉡: 인간의 행동이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 움직인다
- ② ㉠: 1,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든가,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 인간이 공정성과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 ③ ㉠: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한 푼도 받지 못하든가
㉡: 인간의 행동이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 ④ ㉠: 1,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든가,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 인간의 행동이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 ⑤ ㉠: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한 푼도 받지 못하든가
㉡: 인간이 공정성과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는다

8. 다음 글에 서술된 '나이프 아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떤 화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예술 경향을 나이브 아트라고 한다. 우리말로 소박파라고도 불리지만 특정한 유파를 가리키기보다 작가의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이프 아트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주제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이브 아트 예술가로는 앙리 루소, 앙드레 보상, 모리스 허쉬펠드, 루이 비뱅, 그랜마 모지스 등이 있다. 이들은 서양 미술의 기본 규칙인 원근법, 명암법, 구도 등에 구속되지 않는 평면적 화면, 단순하지만 강렬한 색채, 자세한 묘사 등을 특징으로 보여 준다.

전업 화가가 아닌 본업이 따로 있어 낮은 취급을 받던 아웃사이드 예술이었지만, 독일 출신의 컬렉터이자 비평가 빌헬름 우테가 루소, 보상 등의 화가들을 발굴하며 하나의 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는다. 이후 나이브 아트는 피카소와 같은 기존 미술의 권위와 전통에 반하는 그림을 그리려는 화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현대미술의 탄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 보 기 >

- ㄱ. 나이브 아트에 속하는 화가로 루소, 보상 등이 있다.
- ㄴ. 나이브 아트는 특정한 유파를 가리킨다.
- ㄷ. 나이브 아트 작가들은 서양 미술의 기본 규칙을 따르고자 한다.
- ㄹ. 현대미술은 나이브 아트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9.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늦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땀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뺨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 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영기는 소리 식어 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활아 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 김선우, 「단단한 고요」 -

- ①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나무에 매달린 도토리에서부터 묵으로 영길 때까지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시어인 '고요'와 '시끄러운'을 병치시켜 역설의 미학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인 도토리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여 주고 있다.

10. (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 (가) 아동 정신의학자 존 볼비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착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이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이가 엄마와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 (나) 아동 정신의학자로 활동하며 연구를 이어간 끝에, 볼비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아이는 정서 발달과 행동 발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또한 아이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필 때 아이는 보호받는 기분, 안전함, 편안함을 느끼고, 이는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해서 생존할 확률을 높이는 요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 (다) 애착이란 시간이 흐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지되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과 어떻게든 가까이 있고 싶은 감정이 애착의 핵심이지만 상대가 반드시 똑같이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라) 하지만 볼비는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면 엄청나게 괴로워하며, 다른 사람이 돌봐 주거나 먹을 것을 줘도 그러한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와 아이의 유대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의미였다.

- ① (가)-(나)-(다)-(라)
- ② (가)-(다)-(나)-(라)
- ③ (나)-(가)-(다)-(라)
- ④ (다)-(가)-(라)-(나)
- ⑤ (다)-(라)-(가)-(나)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픈AI사에서 개발해 내놓은 ‘챗지피티(chatGPT)’의 열기가 뜨겁다. 챗지피티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구축된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와 채팅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한다. 예를 들어 “3+4를 계산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 줘”라고 요구하면, 챗지피티는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를 출력해서 알려 준다. 뒤이어 “같은 작업을 R에서 사용하는 코드로 짜 줘”라고 말하면,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같은 기능의 R 코드를 제공한다.

우리는 어떻게 시시각각 신기술로 무장하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인공지능이 해 줄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할 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인공지능이 가진 성찰성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챗지피티의 흥미로운 특징은 매우 성찰적인 인공지능인 척하지만, 사실은 매우 형편없는 자기반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다.

인공지능의 기능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지, 기계의 역할이 아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오류를 교정하고 최적화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명백하게도 인간 사용자의 특성과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사용자 경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 가고 있는 구글 번역기는 영어-스페인어 사이의 전환은 훌륭하게 수행하지만 영어-한국어 사이의 전환은 그만큼 잘하지 못한다. 그 사용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사회의 소수자는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에서도 소수자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에 대해 성찰하는 역할만큼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맡기지 말아야 할 영역이다.

인공지능의 범람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또한 인간 스스로의 가치와 주체성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용감하고 당당한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① 인간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 ②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에도 인간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된다.
- ③ 인공지능이 글쓰기를 잘 수행하더라도 인간은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④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이 가진 성찰성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 ⑤ 인공지능은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 자신의 오류를 교정하고 최적화한다.

12. 다음 글은 글쓰기의 자세에 대한 것이다.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이 세상 모든 사물 가운데 귀천과 빈부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정하지 않는 것은 오직 문장뿐이다. 그리하여 가난한 선비라도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빛을 후세에 드리울 수 있으며, 아무리 부귀하고 세력 있는 자라도 문장에서는 모멸당할 수 있다.
- (나) 배우는 자는 마땅히 자기 역량에 따라 알맞게 쓸 뿐이다. 억지로 남을 본떠서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글쓰기의 본령이다.
- (다) 글이란 것은 뜻을 나타내면 그만일 뿐이다. 제목을 놓고 붓을 잡은 다음 갑자기 옛말을 생각하고 억지로 고전의 사연을 찾으며 뜻을 근엄하게 꾸미고 글자마다 장중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화가를 불러서 초상을 그릴 적에 용모를 고치고 나서는 것과 같다.
- (라) 문장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 첫째로 주의할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면 마음이 이치에 통하고 온갖 관찰력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 (마) 대체 글이란 조화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문장은 반드시 정교하게 되나 손끝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정교하게 되지 않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 ① (가): 글쓰기에서 훌륭한 문장은 빈부귀천에 따라 높고 낮음이 정해진다.
- ② (나):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과는 다른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 ③ (다): 글에서 중요한 것은 꾸미는 것보다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 ④ (라):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⑤ (마): 글은 마음으로부터 이뤄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13. 밑줄 친 동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씻어 놓은 상추를 채반에 받쳤다.
- ②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쳐서 끄짖을 못 한다.
- ③ 그녀는 세운 무릎 위에 턱을 받치고 앉아 있었다.
- ④ 양복 속에 두꺼운 내복을 받쳐서 입으면 옷맵시가 나지 않는다.
- ⑤ 고추가 워낙 값이 없어서 백 근을 시장 상인에게 받혀도 변변한 옷 한 벌 사기가 힘들다.

14. 밑줄 친 피동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글은 두 문단으로 나뉜다.
- ② 들관이 온통 눈으로 덮인 광경이 장관이었다.
- ③ 벌목꾼에게 베인 나무가 여기저기에 쌓여 있다.
- ④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짚히는 바가 없다.
- ⑤ 안개가 건히고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 ① 일이 있어서 숙제를 못했다.
- ② 총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 ③ 한달간 전국 일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 ④ 현대사회의 제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 ⑤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16. 다음 단어의 로마자 표기로 옳은 것은?

	<u>종로</u>	<u>여의도</u>	<u>신라</u>
①	Jongro	Yeouido	Silla
②	Jongno	Yeouido	Silla
③	Jongro	Yeoeuido	Sinla
④	Jongno	Yeoeuido	Silla
⑤	Jongno	Yeoeuido	Sinla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환경 보호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초창기 환경 운동의 목표는 전통적인 자연 보호, 곧 특정 습지의 특정 조류를 보호하려는 좁은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특정 종의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사랑에서는 열정적 투쟁 욕구가 생겨나는 반면,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자연 사랑은 어딘지 모르게 산만한 게 사실이다. 바로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올슨 패러독스이다. 이것은 특별한 공동 이해관계로 묶인 소규모 그룹이 얼굴을 맞대고 단호히 일을 추진할 때, 대단히 애매한 일반적 이해를 가진 익명의 대규모 집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추진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역설대로 소규모 그룹에는 로비할 좋은 기회가 주어지며, 마찬가지로 특정 사안을 반대하는 지역 저항 운동이 성공을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환경 정책이 아주 까다로워진다.

무조건적인 타당성을 갖는 환경법을 요구하는 환경 정책은 애초부터 좌절될 수밖에 없다. 비록 나라와 문화마다 정도가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족벌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서서 다른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충성심이 발달했다. 환경 정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를 얻는다. 이기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환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현대화 과정에서 발달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물론 자신의 직접적인 생활 환경을 지키려는 각오도 환경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환경 운동은 완전히 보편적 방향으로 발달하기는 힘들다. 우선 자신의 이해관계부터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탓에 근본적 긴장은 항상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① 현대화 과정에서 부각된 인간의 이기적 이해관계는 인간이 가진 자연 지배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발달하게 되었다.
- ② 환경 운동은 특정 생물 집단의 번식과 지속성을 보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자연 경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③ 환경 운동에서 발생하는 올슨 패러독스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 ④ 환경 운동은 대규모 집단의 이해관계가 소규모 집단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환경 운동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심은 환경 운동을 위한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18.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맞지 않는 것은?

- ① 그들은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 ② 아이들은 등꽃길이 마냥 즐거웠다.
- ③ 빨랫줄에 있는 빨래를 걷어라.
- ④ 마굿간에는 말 두 마리가 있다.
- ⑤ 요즘은 셋방도 구하기 힘들다.

19. ㉠,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김 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맛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이라고 고향을 친게 수상하다. 이 고향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 침지는 방문을 활각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떨어진 샷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던 김 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령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밟시웠다. 그러나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뭇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 현진건, 「운수 좋은 날」에서 -

- | | |
|--------------|------------|
| ㉠ | ㉡ |
| ① 노심초사(勞心焦思) | 주야불식(晝夜不息) |
| ② 허장성세(虛張聲勢) | 전전반측(輾轉反側) |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전전반측(輾轉反側) |
| ④ 노심초사(勞心焦思) | 주야장천(晝夜長川) |
| ⑤ 허장성세(虛張聲勢) | 주야장천(晝夜長川) |

20.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 농사가 시작되면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농사는 야생 곡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처럼 농사는 채집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였다. 더욱이 당시 농업 기술은 보잘것없었고, 이를 극복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인간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족 번식, 곧 여성의 출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 중후반에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광활한 대지의 개간이나 밭갈이에는 엄청난 노동력과 강한 근력이 요구되었다. 농사는 더 이상 여성의 섬세함만으로 해낼 수 없는 아주 고된 일로 바뀌었다. 마침 이 무렵, 짐짐승 기르기가 시작되면서 남성들은 더 이상 사냥감을 찾아 산야를 헤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사냥 활동에서 벗어난 남성들은 생산 활동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보조자로 밀려나서 주로 집안일이나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성이 주요 생산 활동을 담당하게 되고, (㉢)

- 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다.
- ② 여성은 생산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 ③ 남성이 남성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④ 남성은 여성을 씨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 ⑤ 사냥 활동에서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본 문학의 세계가 여자들에게 열려 있긴 했어도 ㉣헤이안 시대의 여성들은 그 시대 대부분의 책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읽을거리를 늘리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독특한 취향에 상응하는 읽을거리를 손에 넣기 위해 여성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학을 창조해 냈다. 그 문학을 기록하기 위해 여성들은 그들에게 허용된 언어를 음성으로 옮긴 가나분카쿠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언어는 한자 구조가 거의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쓰이면서 ‘여성들의 글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발터 벤야민은 “책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서도 책을 직접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칭송할 만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논평했던 적이 있다. 헤이안 시대의 여자들도 깨달았듯이 어떤 경우에는 책을 직접 쓰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일 수가 있다. 헤이안 시대의 여자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로 일본 문학사에서, 아마도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품 몇 편을 남겼다. 무라사키 부인이 쓴 『겐지 이야기』와 작가 세이 쇼나곤의 『마쿠라노소시』가 그 예이다.

『겐지 이야기』, 『마쿠라노소시』 같은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문화적·사회적 삶이 소상하게 나타나지만, 그 당시 궁정의 남자 관리들이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던 정치적 술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언어와 정치 현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이 쇼나곤과 무라사키 부인조차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풍문 이상으로 묘사할 수 없었다. 어떤 예이든 이런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을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의 삶을 향해 거울을 받쳐 들고 있었던 셈이다.

- ① 읽을거리에 대한 열망을 문학 창작의 동력으로 삼았다.
- ② 창작 국면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작품에 그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 ③ 궁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치밀하게 묘사하였다.
- ④ 한문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창작에 참여하였다.
- ⑤ 문필 활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남성적 취향의 문학 독서를 수행하였다.

22.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송년(送年) 모임이 회사 앞 부페 식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 ② 저 남자 배우는 애드립에 능해서 연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 ③ 점심시간이 끝나자 사람들은 채스민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 ④ 여행 정보 팜플렛을 얻으러 회사 근처의 여행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 ⑤ 유머가 있고 내용이 가벼운 폰트 프로그램을 한 편 보기로 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23. ~ 문 24.]

사람과 상황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상황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놓일 수는 없다. 제한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부모의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처럼 자신의 의지나 책임이 아닌 절대적 상황이 그런 경우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는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때는 자신의 욕망이나 목표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적 압력이나 압박들이 단순히 직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균형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왜곡된 관념들로 치닫기 시작하면 상황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지배해 나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이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다른 측면이 점화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손함이나 공격성 등은 상황에 따라 점화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읽거나 들었던 단어 또는 정보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점화 효과’라고 한다.

23.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내용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설명하는 내용을 병렬적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과 상황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
- ② 경제적 불균형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지배할 수 없다.
- ③ 부모의 학대와 같은 상황은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이다.
- ④ 몸이 아플 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의 일종이다.
- 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공격성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점화된다.

25.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첫닭 울고 둘째 닭 울더니
 작은 별 큰 별 떨어지는데
 문을 들락거리며
 살짜이 살짜이 행인은 길 떠날 채비하네

2
 나그네 새벽 틈타 떠나렸더니
 주인은 안 된다며 보내질 않네
 채찍을 손에 쥔 채 못 이긴 척 돌아서니
 닭만 괜스레 번거롭게 했구나

- 이병연, 「조발(早發)」 -

< 보 기 >

- ㄱ. ‘첫닭’은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 ㄴ. ‘나그네’와 ‘주인’의 관계가 닭 울음으로 인해 달라진다.
- ㄷ. ‘살짜이 살짜이’는 ‘행인’의 조심스러운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ㄹ. 화자는 ‘나그네’와 ‘주인’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헌 법

1. 책임과 형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비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④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은,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통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③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정보는 통신의 내용·상황과 관계없는 ‘비 내용적 정보’이며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수단을 통하여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라 할 수는 없다.
- ④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육군본부 2006. 12. 18. 교육참고 25-3) 중 전화사용의 통제에 관한 부분은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⑤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무담임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이 2020. 7. 공고한 ‘2021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중 ‘임용 대상’ 가운데 ‘1. 신규 임용’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사회복지요원 소집해제 예정인 사람을 제외한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연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사회복지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소집해제 예정인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협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③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②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제1항을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②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란 원칙적으로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인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가를 불문하며, 중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 ②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현재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므로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④ 당해사건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 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측량업의 등록을 한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측량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8.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당해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ㄴ.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ㄹ.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
- ㅁ.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9.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②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8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③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0.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세 미만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 ② 복수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④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⑤ 정당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11. 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 ②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 ③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④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칠 수 있다.
- 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가산점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12. 헌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②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한 확산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 ③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본인의 생전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⑤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일반 공중에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의 통행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13.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방송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은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타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가지고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하는 행위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표현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4.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 부과하도록 하면 납세의무자는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 이외에 부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② 「댐건설관리법」은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며 「댐건설관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댐사용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
- ③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약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 ④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헌법 제23조제1항, 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수용을 정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재산권 제한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제한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 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5.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그러한 행정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그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
- ②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 ③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 ④ 포괄위임금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자의적인 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엄격한 헌법적 기속을 받게 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⑤ 위임입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입법)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갖는 법규의 정립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주의 내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반드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16.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 ③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
- ④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등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
- ③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라도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등이 통신 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의 명칭, 종류, 주소,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은 공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18.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를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ㄷ.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 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9.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되었으며, 인간존엄성 규정이 신설되었다.
- ② 제1차 헌법개정(1952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등이 도입되었다.
- ③ 현행헌법(1987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제도가 부활하고, 1972년에 폐지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규정이 부활하였다.
- ④ 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과 무죄추정의 원리 그리고 적법절차조항이 도입되었다.
- ⑤ 제7차 헌법개정(1972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이 삭제되었다.

20. 헌법의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ㄷ. 헌법 제128조제2항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헌법개정의 허용을 전제로 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개정효력의 한계’ 규정이다.
- ㄹ.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현행 헌법의 성립과정과 헌법 제130조제2항이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1.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어떠한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헌적 해석가능성은 배제하고, 합헌적 해석가능성을 택하여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해석방법이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근거로 권력분립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 ③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범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민법」 제764조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2. 국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고,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2년간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고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실한 이후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⑤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3. 보통선거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관한 헌법상 일반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구 「공직선거및투표방지법」 제37조제1항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 ㄷ.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ㄹ.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 ㅁ.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4.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으며,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 ⑤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25.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쟁의심판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④ 정당은 비록 정치적인 자발적 결사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⑤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의 피청구인의 처분이라 함은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야기할 만한 법적 중요성을 지니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있다.

경 제 학

1. A와 B 두 사람은 고기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두 재화의 생산량은 모두 시간에 비례한다. 두 사람의 시간당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고기(kg)	과일(kg)
A	2	4
B	1	3

- ① B는 과일 생산에만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 ② A는 과일 생산에만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 ③ B는 과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 ④ A는 고기와 과일 생산 모두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 ⑤ 고기 1kg을 과일 1kg과 교환하는 조건이면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발생한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기울기가 음(-)인 선형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은 측정 위치에 따라 0에서 ∞까지의 값을 갖는다.

ㄴ. 직각쌍곡선인 수요곡선상 모든 점의 가격탄력성은 동일하다.

ㄷ.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량 변화가 원인변수이고 가격 변화가 결과변수인 개념이며, 수량과 가격 변화를 백분율로 환산한 비율로 계산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때 한국 경제가 받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운 소국임)

- ① 자본 유출 발생
- ② 원화 가치 절하
- ③ 국내 금리 상승
- ④ 국내 생산 증가
- ⑤ 무역수지 악화

4. 게임상황에 있는 경기자 X, Y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전략 선택에 따른 보수가 다음 전략 게임으로 표현된다. 각 전략 조합에서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X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Y의 보수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X \ Y	전략 c	전략 d
전략 a	(6, 7)	(2, 3)
전략 b	(12, 4)	(4, 6)

- ① 경기자 Y는 유일한 우월전략을 가진다.
- ②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1개이며, 파레토 효율적이다.
- ③ 이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게임이다.
- ④ 내쉬균형에서 경기자 Y는 전략 c를 선택한다.
- ⑤ 경기자 Y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는 순차게임의 결과와 내쉬균형의 결과는 동일하다.

5. 가격소비곡선(P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PCC는 한 재화의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소비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ㄴ. 수평축에 표시한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PCC는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ㄷ. 수평축에 표시한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PCC는 우상향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6. 단기총공급곡선(SRAS)은 수평, 장기총공급곡선(LRAS)은 수직, 총수요곡선(AD)은 우하향한다. 총수요 확대정책의 결과 현재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다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① LRAS 곡선과 SRAS 곡선은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과 같아질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② SRAS 곡선은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과 같아질 때까지 위로 이동한다.
- ③ LRAS 곡선은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과 같아질 때까지 위로 이동한다.
- ④ SRAS 곡선은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과 같아질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⑤ LRAS 곡선은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과 같아질 때까지 왼쪽으로 이동한다.

7. 소비자 A는 X재와 Y재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으며, A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예산선 위의 최적소비점에서 X재의 한계효용은 2, X재의 가격은 1/3, Y재의 가격은 1/2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 < 보 기 > —

- ㄱ. 예산선 위의 소비조합에서 Y의 한계효용이 4라면 소비자 A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X재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Y재 소비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 ㄴ. 예산선 위의 소비조합에서 Y의 한계효용이 3이라면 소비자 A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Y재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 ㄷ. 예산선 위의 소비조합에서 Y의 한계효용이 2라면 소비자 A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Y재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8. 어떤 재화의 수요와 공급함수는 아래와 같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생산량 1단위당 30씩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출총액(A)과 보조금으로 인한 후생손실(B)의 비율(A:B)로 옳은 것은?

- 수요함수: $P = 100 - \frac{1}{2}Q_D$
- 공급함수: $P = 40 + \frac{1}{4}Q_S$

- ① 2:1
- ② 3:1
- ③ 4:1
- ④ 5:1
- ⑤ 6:1

9. 다음은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X재의 보상수요곡선과 보통수요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ㄱ. X재가 정상재라면 보통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보상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 ㄴ. X재가 기펜재가 아닌 열등재라면 보통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
- ㄷ. X재가 기펜재가 아닌 열등재라면 보통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보상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 ㄹ. X재가 기펜재라면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보통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단기 필립스곡선이 수평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총수요가 감소하면 실업이 크게 증가한다.
- ③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 ④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어렵다.
- ⑤ 가격이 경직적이다.

11. A국의 정책변화 전 경제상황은 아래와 같다. A국 정부는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보기> ㄱ~ㄴ의 정책수단들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중 총수요 증가 효과의 크기가 같은 정책수단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Y, C, I, G, T, NX는 각각 총수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세금, 순수출을 의미함, ㄱ~ㄴ의 정책변화는 독립적임)

$$Y=C+I+G+NX$$

$$C=100+0.7(Y-T)$$

$$I=0$$

$$G=0$$

$$T=100$$

$$NX=0$$

< 보 기 >

- ㄱ. 정부지출을 60으로 증가시킨다.
- ㄴ. 세금을 100에서 10으로 감소시킨다.
- ㄷ. 수출장려 정책으로 순수출을 60으로 증가시킨다.
- ㄹ. 소비촉진 정책으로 한계소비성향을 0.9로 증가시킨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2. 기업 1과 2가 차별화된 재화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기업 1이 생산하는 재화의 수요곡선은 $q_1=4-p_1+p_2$ 이고, 기업 2가 생산하는 재화의 수요곡선은 $q_2=4-p_2+p_1$ 이다. 두 기업 모두 생산비용은 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의 내쉬균형에서 두 기업은 동일하게 가격을 4로 결정한다.
- ②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보다,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에서 두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 ③ 두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보다,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에서 두 기업의 이윤은 더 크다.
- ④ 두 기업이 순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에서 선도자(leader)의 이윤이 추종자(follower)의 이윤보다 더 크다.
- ⑤ 두 기업이 순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에서 선도자(leader)는 추종자(follower)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

13.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이 경기부양에 실효성이 있을 때 발견되는 현상이며, 구축효과가 크면 경기부양 효과도 커짐을 의미한다.
 - 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질수록 구축효과 크기는 증가한다.
 - ㄷ. 고전학파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4. 마스크 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장기균형 상태에서 코로나 종식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스크 가격의 하락
- ② 마스크 생산 기업의 이윤 유지
- ③ 마스크 생산 기업 수의 감소
- ④ 마스크 시장의 공급 감소
- ⑤ 마스크 생산 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감소

15. 다음은 어떤 경제에 대한 조사결과의 일부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생산가능인구: 300명
- 비경제활동인구: 60명
- 취업인구: 180명

< 보 기 >

- ㄱ. 취업률은 75%이다.
- ㄴ. 고용률은 60%이다.
- ㄷ.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6. 고전학과 거시모형에서 생산함수는 $Y = 50\sqrt{L}$, 노동공급함수는 $\frac{W}{P} = \sqrt{L}$ ($P > 0$), 통화량은 100, 화폐의 유통속도는 10이다. 저축함수는 $S(r) = -10 + 1000r$ 이고, 투자함수는 $I(r) = 50 - 200r$ 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Y, L, W, P, r 은 각각 산출량, 노동, 명목임금, 물가, 이자율임)

- ① $W = 40$
- ② $L = 25$
- ③ $Y = 250$
- ④ $P = 4$
- ⑤ $r = 0.05$

17. 재화 X를 생산할 때, 사적 한계비용은 $PMC=Q$ 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Q+10$ 이다. 이 재화로 인한 사적 한계편익은 $PMB=20-Q$, 사회적 한계편익은 $SMB=18-Q$ 이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게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려고 한다. X재 한 단위당 부가해야 할 피구세로 옳은 것은?

- ① 6
- ② 8
- ③ 10
- ④ 12
- ⑤ 14

18.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을 의미함)

< 보 기 >

- ㄱ. 외국 물가의 하락
- ㄴ. 자국 이자율의 하락
- ㄷ. 외국의 경기호황
- ㄹ. 자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9. 어떤 생산자는 노동(L)과 자본(K)만을 투입하여 생산한다. 이 생산자의 생산함수는 $Q = LK$ 이고, 투입요소 L의 단위당 가격은 w , K의 단위당 가격은 r 이라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함)

- ① $K = \frac{w}{r}L$ 은 이 생산자의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한 점에서 접하는 조건을 표현한 것이다.
- ② 이 생산함수는 규모수익체증에 해당한다.
- ③ 이 생산자의 비용최소화 조건은 $L = \frac{r}{w}K$ 를 만족한다.
- ④ 이 생산자의 비용(C)은 $C = 2rK$ 를 만족한다.
- ⑤ 만약 $w = 1, r = 25$ 이고 현재 생산량(Q)이 25라면, 이 생산자의 최저생산비용은 100이다.

20. 실물적 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실질이자율의 변동은 현재 및 미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 ㄴ. 통화량이 증가하면 산출량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 ㄷ. 불완전경쟁하에서 호황과 불황은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다.
- ㄹ. 기술 충격으로 인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 ㅁ.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21.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인 테일러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에 영향을 받는다.
- ② 코로나 사태나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 ③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 ④ 지나친 경기침체나 경기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재량대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 ⑤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다.

22. A, B, C 3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한다.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P_A=10-Q$, $P_B=20-2Q$, $P_C=7-Q$ 이고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용함수는 $C(Q)=3+9Q$ 이다. 이때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공급량으로 옳은 것은?

- ① $\frac{34}{13}$
- ② 7
- ③ 8
- ④ 9
- ⑤ 28

23.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직전에는 화폐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이때 화폐수요의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공개시장(A)을 통해 통화량을 변동시켜 이자율이(B) 것을 억제하고자 한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A) | (B) |
|---|-----|------|
| ① | 매각 | 하락하는 |
| ② | 매입 | 하락하는 |
| ③ | 매각 | 유지되는 |
| ④ | 매입 | 상승하는 |
| ⑤ | 매각 | 상승하는 |

24.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에서의 생산량은 장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의 생산량보다 적다.
- ㄴ. 독점적 경쟁기업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 ㄷ.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균형에서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윤은 0보다 크다.
- ㄹ. 독점적 경쟁기업의 단기균형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5. 외생적 기술진보를 가정한 솔로우(R. Solow)의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함수는 1차 동차함수를 가정함)

- ①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은 기술진보율만큼 증가한다.
- ② 황금률 자본량은 모든 균제상태의 자본량을 말한다.
- ③ 기술이나 생산성은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 ④ 투자율이 증가하면 균제상태의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성장 효과가 있다.
- ⑤ 저축률이 증가해도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